

함평군 월야면 '달빛·의로움' 고장 재탄생한다

도내 유일 국토부 공모 선정 쾌거

250억원 투입 2029년까지 조성

빛그린산단 배후 생활 기반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소멸 극복

함평군 월야면이 역사와 문화,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달빛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지역특화재생)에 월야면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전남 지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선정으로 군은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 원, 군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월야면 소재지 일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의 핵심 테마는 월야(月也)의 지명 유래

인 '달빛'과 지역의 역사적 자산인 '의로움(의

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 특화 거점인 '의월마루' 조성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달이 내린 생활환경' 조성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달빛을 품은 상권'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우선 신수택 이병장 등 지역의 항일 이병 역사 를 기리는 복합 관광시설 '의월마루'가 건립된다. 이곳은 전시·체험 공간과 포토존 등을 갖춰 세대를 아우르는 역사 체험의 장이자 월야면만의 차별화된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될 예정이다.

인접한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성도 강

화한다. 산단 근로자와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거점 시설인 '달빛그린 공유마루'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공유 주방, 창작 공간, 소규모 오피스 등이 들어서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월야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음식 경연 프로그램인 '월야 미식전(美食戰)', '달빛 야시장'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도입해 미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수도 정비 등 부처 연계 사업을 병행해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된 것은 주민과 행정, 관계 기관이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함평의 동북권 관문인 월야면이 역사와 문화, 경제가 살아 숨 쉬는 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목포시 '근대문화' 매개 일본 관광객 유치 쟁걸음

지자체 유일 한·일 관광진흥협 참가

지리적 이점·역사적 인연 중심 홍보

명소 탐방·미식관광 등 테마 교류도

목포시가 다양한 근대역사 관광자원을 매개로 일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최근 일본 시가현 오쓰시에서 열린 '2025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 참가해 일본 관광시장을 겨냥한 현장 중심의 글로벌 홍보마케팅을 전개했다.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을 주무 부처로, 한국관광공사(KTO), 일본정부관광국(JNTO), 양국 여행업 협회 및 관광·항공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이다.

1986년 이후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광교류의 지속적 확대 ▲지역관광 활성화 ▲미래세대 교류 증진 ▲관광산업 다양화 ▲장거리 관광객 유치 협력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최근 일본 오쓰시에서 열린 '2025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협의회에서는 양국 정부의 관광정책 발표와 함께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목포시는 개최지인 일본 시가현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참가해 비교우위를 지닌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유치 전략을 적극 소개했다.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근대문화유적 등 일본과의 역사적 인연을 간직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홍보를 펼쳤다.

아울러 올해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 개최지로서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 가치를 강조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박인지 목포시 관광과장은 "일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근대역사 관광과 명소 탐방, 미식관광 등 다양한 테마의 교류를 통해 'K-관광 목포'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2026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목포로 유치해, 한·일 관광교류 확대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일몰·일출 한 자리서'...해남 해넘이·해맞이 행사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땅끝 일원

공연·불꽃쇼·피파 띠우기 등 다채

땅끝 해남에서 묵은해의 아쉬움을 달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다채로운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송지면 땅끝마을 일원에서 '제27회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를 개최한다.

땅끝마을은 일몰과 일출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군은 올해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죽제 첫날인 31일에는 노브레인, 은주(전 씨 니힐), 박강수 등이 출연하는 '땅끝 음악회'가 연말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이어 자정에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대형 불꽃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대북 및 퓨전 타악 공연을 시작으로 액운을 띠워 보내는 띠파 띠우기, 소원 풍등 날리기 등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

는 전통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방문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일자다. 31일 진행되는 '땅끝마을 한바퀴' 스템프 헤리 참여자에게는 해남쌀과 땅끝 굿즈 등 한정판 기념품을 선착순 증정한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운영하는 '땅끝 구이터'와 '새해 땅끝 자유이용권(천원권)'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이밖에 태로 운세, 명태 액막이 키링 만들기, 해양자연사박물관 애간 무료 개방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가 준비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해남 지역의 2025년 마지막 일몰 시각은 31일 오후 5시33분, 2026년 새해 첫 일출 시각은 1월 1일 오전 7시40분으로 전망된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암군은 최근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을 가졌다.

영암 대불주거단지-삼호읍 도시계획도로 개통

42억 투입 왕복 4차로 조성

영암군은 "최근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돼 지역 주민들의 통행과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연장 630m, 폭 20m의 왕복 4차로 규모로, 두 지역의 생활권 확장과 이동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진됐다.

도로 개설을 통해 그동안 삼호읍·고등학교 통학 시 약 1km를 우회해야 했던 학생들의 불편 이해소됐으며,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하며 통학 안전을 강화됐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차로 2개소에 신호등 19주를 설치하고,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기로등 25개도 확충했다. 향후 주변 개발에 대비해 우수·오수·상수관로 등 지하 기반 시

설 매설도 마쳤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2년 11월 용지 보상을 거쳐 같은 해 12월 첫 삽을 뗐다.

총 공사비 42억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이달 중 최종 마무리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 개통으로 대불주거단지와 삼호읍 중심 생활권 간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도로 기반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영광 대마면 "농특산품 장터 놀러오세요"

오늘부터 이틀간 대마주조장 일원

영광군은 22일 "대마면 번영회가 23~24일 이틀간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25 송년맞이 대마면 농특산품 판매장터·나눔행사'를 대마주조장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마면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열린다. 먹거리 장터의 시식 코너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막걸리와 치즈스틱을 곁들인 따뜻한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나눔 바자회에서는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될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신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2년 연속 우수기관

AI·IoT 기술 섬 지역 의료 한계 극복

신안군은 "최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모바일 보건소 시스템(MPHIS)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20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모바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량계 ▲체성분분석 ▲혈압

계 ▲혈당계 등 스마트 건강측정기기가 지급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분석된다. 보건소는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신안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섬이라는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병원이 멀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완도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지원 322억 투입

내달 16일까지 대상자 모집

양식장 정화 등 57개 사업

완도군이 어촌 경제 활성화 제고와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나선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2026년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를 내년 1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 규모는 57종, 322억원에 달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용 기자재 보관장고 및 다목적 공간 지원 ▲양식 어장 정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연안·구획 어업 어선·어구 김책 ▲완도전복 마케팅 지원 ▲수산 식품 가공 설비 지원 ▲유망 양식 품종 종자 공급 등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업인 단체(어촌계·어업법인 등), 수협 등으로 각 사업에서 정한 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어

야 한다.

희망자는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업 내용은 완도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현지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완도군 수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 기간 동안 2027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수요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